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종과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경주 보문단지내 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불교 예술대전 개막식 모습.



▶미래불교를 체험하게 하는 부다피아 사이버 법당을 참배하고 있다.

‘문화의 세기’ 불교가 이끈다

’99 불교 예술대전

4월 30일 ~ 6월 5일 경주 보문단지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은 국민이 세계화에 관심을 쏟으면서 식자들 사이에 회자됐던 이 말을 실감케 하는 박람회 개최되고 있다.

유형 무형의 우리 문화유산을 통틀어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예술이 중심축에 그 우수성과 진수를 선보이는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4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37일 동안 보문단지인 엑스포광장에서 마련되는 이 행사는 1천6백여년 한국불교에 녹아 있는 예술세계의 과거·현재·미래를 한자리에서 체험하게 한다.

문화예술이란 물 흐르듯 늘 교류되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불교예술대전은 과거의 전통과 오늘과 미래의 전통과정을 통해 미래 불교예술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10만 연등이 자비의 불빛으로 울타리와 장내 곳곳을 감싸 안은 행사장은 다채로운 전시·공연·이벤트가 펼쳐지는 속에서 예술의 향기와 사람의 감동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 마스코트로 애동아와 예술이가 사천왕 삼장법사 손오공 등 13종의 캐릭터들과 행사장을 누비며 어린이 청소년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뛰어다니고 환희사9층탑을 1/4크기로 축소한 22m 에어구조물 민속화합과 호국 불교의 위상과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을 환히 드러내 준다.

주제관은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영상관, 한국불교 역사 문화 의식을 전시하는 전시관, 승무 등 예술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중앙에는 백남준식의 멀티큐브를 이용한 불교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앞으로 미래 불교를 체험케하는

사이버법당을 조성, 참배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건축관 미술관 유물관으로 전시되는 예술관은 불교예술의 진미를 한자리서 만끽하게 한다. 특히 해방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한 불교서화교류전은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덕 종진 스님과 불자 서예가의 작품 50점이 나오고 북한에서는 서예 동양화 문인화 등 100여점이 선보인다. 체험관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시연하고 관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팔



◊4월30일 각계 지도자들이 개막대회를 열고 있다.

주제관·전시관·예술관등 다양 22m 에어구조물 황룡사탑 ‘두둥실’ 해방후 첫 남북 불교인 서화교류전

만대장경 관각, 만다라 선화 불화 민화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한지 제작 과정도 체험할 수 있어 어느 전시회와는 색다른 감동을 받게 된다.

특별이벤트로 주목되는 것은 종단의날 행사. 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으로 문화 및 포교 활동을 특색있게 보여주며, 수행법도 체험할 수 있다.

탐돌이, 퍼레이드, 페이스머치페인팅, 불교캐리

커져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등 상설 이벤트가 열리는 진리의 광장(중앙광장), OX퀴즈, 검박모드쇼 등 축식 이벤트가 신선함을 더해주는 진리의 광장도 신나는 예술대전의 즐길 거리이다.

때마침 예술대전이 열리는 동안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날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가족과 단체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탐쌍기, 닭싸움, 풍덩기, 율놀이 등 다양한 놀이마당은 재미와 즐거움을 더한다.

불교예술대전은 37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 일어 동역도우미와 안내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 시설로 병원 경찰서 우체국 은행 미아보호소가 들어서 있고, 주차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불교예술대전 조직위(0561)745-0374~5
http://www.buddhismexpo.co.kr

사이버 법당 ‘눈길’

가상공간서 부처님께 꽃 공양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서 개방

“어서오십시오, 사이버 법당입니다.” 주재관 안 중앙에 전시된 70인치 초대형 프로젝션 TV 앞에 사람이 들어서면 컴퓨터가 알아차리고 인사를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불교상을 예고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부처님 참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이버 법당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개발한 3D 동영상 최첨단 시스템으로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합성해 가동된다. 법당 참배 방식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가상공간의 일주문이 열리고 법당으로 들어가게 되며, 입체감을 보이는 사이버 부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한다.



◊주제관 안에 설치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사이버 법당.

음성안내에 따라 합장 예배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사이버 꽃공양꽃이 나타나 불단에 올려지는 것, “상불하십시오.” 라는 컴퓨터 멘트에 따라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불단의 향이 퍼오르면서 참배를 마치게 된다. 1회 참배에 소요되는 시간은 35초.

불교예술대전 총연출 김진용 감독

“불교예술 진면목 확인 기회”

“흔히 일반 사람들은 불교 속에 녹아든 예술을 말할 때 신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술대전은 신심 못지 않게 예술로서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9 한국불교예술대전 총연출을 맡은 김진용감독(38세)은 단순한 불교 내부 행사가 아니라 한국예술의 큰 터전인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그는 서양미술을 전공하고 지난해 경주문화엑스포 때도 일익을 담당했다. “경주 불교예술이 일반 예술계에서 상대적으로 폄하되는 아픈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불교예술이 풍부한 역사성과 가장 한국적인 독특한 내용을 지녔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전이 불교예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막법회에 이어 윤제산 자장암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행사장으로 이송하고 있다.

경주 불교예술대전 입장권 할인판매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을 후원하고 있는 본사는 독자여러분에게 정가의 15% 할인된 입장권을 배포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장료 : 1인당 어른 6,000원, 청소년(중·고생) 4,000원, 어린이(만4세 이상) 2,000원
문의 및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